북한의 국어사 및 국어학사 연구

이 현 희

1. 들어가기

이 글은 북한의 국어사(그들의 용어로는 조선어사) 연구 및 국어학사(그들의 용어로는 조선어학사) 연구에 대해 그 특징을 서술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곳의 서술에는 편의상 국어사 및 국어학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료와 주석 등의 문헌학과 관련된 연구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북한에서의 국어 연구의 시기 구분은 고영근 교수가 맡은 제2장에서 제시된 바를 따르되, 주체사상이 확립되는 1966년을 전후한 근 10여년 동안에는 국어사 및 국어학사 방면의 연구가 거의 없음을 먼저 밝혀 둔다.[1]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실천적인 방면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방면의 연구는 1966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 시기와 후 시기로 나누어 보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할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기 구분을 행하지 않고 주제별로 그 연구성과를 조망해 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먼저, 북한에서는 국어사와 국어학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는 김병제의 『조선어학사』(1984)를 통해 소략하나마 살필 수 있다. 김병제(1984: 13-4)는 '조선어사와 조선어학사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이 두 '분과'는 '자기의 고유한 연구대상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 하나의 언어자료와 그것의 변화과정을 어사에서도, 어학사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조선어사'는 어디까지나 '조선말이 걸어온 력사적 변천을 연구하는 분과'로서 '조선말이 지니고 있는 어음, 어휘, 문법의 변화 발전과 인민들의 글자생활이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력사적으로 고찰하는 조선말 발전력사'이며, '조선어학사'는 '조선어학의 력사' 즉, '사람들의 조선말 및 조선글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대

[1] 그 이전의 이 방면 연구는 주로 최현배의 『우리말본』(1939)과 『한글갈』(1942), 양주동의 『고가연구』(1942)와 『여요전주』(1947)를 비판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상으로 하는, 조선말 연구의 력사'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문자에 대한 사항이 국어사에 포함되기도 하고 국어학사에 포함되기도 함을 볼 수 있다. 실제로도 그들의 연구물에는 문자에 대한 사항이 이 두 분야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은 우리 쪽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어사가 문자에 담겨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문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자료 및 주석 방면

이 방면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편이다. 단행본으로 간행된 자료집이나 주석집은 다 1966년 이전에 출간된 것들이다. 정렬모의 『신라향가주석』(1954)이나 홍기문의 『고가요집』(1959) 정도를 본격적인 주석 작업이나 자료집에 포함시킬 수 있다. 홍기문의 『향가해석』(1956)과 『리두연구』(1957), 정렬모의 『향가연구』(1965)도 이 계열의 업적으로 추가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차자표기 자료들이 주된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행본은 아니지만, 역사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연구실의 "조선 삼국시대의 금석문"(1957)과 "통일신라시대의 금석문"(1958)은 차자표기 자료의 발굴, 집성이라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劉昌宣의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分析(1-6)"(1949)은 주석 작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주석 논문들이다. 먼저 간단한 해제를 붙이고 뒤이어 국문으로 된 부분에 어학적 주석을 달아 놓았다. 필자 미상의 "月印釋譜의 硏究"(1949)는 희방사판 『월인석보』 권1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것도 주석류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석 작업이 행해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간단한 해제를 붙이고 본문과 그 해석, 대의의 순서로 체재가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김종오의 "處容歌에 대하여"(1949)와 "動動에 대하여"(1949), 한수암의 "송강가사의 연구(1-5)"(1949)와 "장끼전 연구"(1949) 및 "농가 월령가의 해석"(1950)과 같이 문학작품을 해석한 논문들도 대개 이와 같은 체재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김종오의 일련의 작업은 돋보이는 곳이 많다. 고려가요 "처용가"를 다룬 논문은 불교적, 풍수설적인 관점과 어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꾀하였다. '界面 도ㄹ샤'와 같은 말은 우리 쪽에서도 그 해석이 제대로 된 일이 얼마되지 않는데,[2] 이미 1949년에 민속적, 무속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해

[2] '界面 도ㄹ샤'의 '界面 돌다'는 민속용어로서 웬만한 국어사전류에는 다 등재되어 있다. 『악학궤범』이 음악서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그 동안 이 구절을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處容의 모습을 형용한 '風入盈庭', '人讚福盛' 등의 語句를 풍수설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도 주목된다. 당시 우리 쪽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고전 교육의 필요성에서 이러한 일종의 講座 작업이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외, 『향약집성방』, 『악학궤범』, 『훈몽자회』, 『한청문감』, 『언문지』, 『물명고』, 『아언각비』, 『이담속찬』 등의 문헌이 주로 1966년 이전에 간헐적으로 국어사적 가치나 국어학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소략하게 소개된 일이 있다.[3] 이런 작업이 1960년대 이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실천적인 국면에 온 정신을 집중하게 된 그쪽 학계의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4]

그런데 이 방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연구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문헌 자료들이 전혀 영인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자료들을 해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고어사전류가 간행되어 나와 있지 않다는, 기초 작업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워낙이 북한 학계에 보유된 문헌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는 기본 문헌의 영인 작업을 해 낼 수 없었을 것이고,[5] 또한 그러한 문헌 자료의 결핍 때문에, 김종오의 "古語 例解(1-9)"

[2] 계 속
음악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으나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국어사전을 펼쳐 보기만 하였어도 이 구절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쪽에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한 일은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2)』(1983: 131)과 최정여의 『한국고시가연구』(1989: 171)에서 비로소 이루어졌으니 불과 얼마되지 않은 일이다.

[3]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저명은 이 글 뒤에 붙은 「북한의 국어사 및 국어학사 연구 논저 목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쪽의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아직 북한의 중·고등학교 과정과 대학 과정의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5] 일례로 황부영의, 711면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 『15세기 조선어 존칭범주의 연구』(1959)만 해도 '인용한 고전 문헌명'이 15세기의 많은 한글 문헌 가운데 『훈민정음언해본』, 『용비어천가』, 『월인석보』(권 1, 2, 7, 8, 21乾坤), 『묘법연화경언해』(권 5, 6), 『금강경언해』, 『아미타경언해』, 『법어』, 『몽산화상법어약록』 정도인 것만 보아도 북한 학계에 보유된 문헌 자료의 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뒷 시기의 연구물에 나타나는 인용 문헌의 수는 이보다 조금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예컨대 김영황의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1978)만 해도 15세기 국어 자료로는 『석보상절』, 『능엄경언해』, 『두시언해』(초간본), 『삼강행실도』, 『선종영가집언해』 정도가 더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몇 가지 자료가 더 인용되어 있는 연구물들도 있다. 예컨대, 홍기문의 『조선어 력사 문법』(1966)을 그 일례로 들 수 있다. 그런데 김영황의 저서에서 15세기 자료라고 들고 있는 『삼강행실도』만 해도 중간본을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자어휘가 모두 이렇듯 정음자로 기사됨으로써 국문으로 일관하게 된 것은 삼강행실도언해가 처음이다"(김영황 1978: 205)

(1949–1950), 김인호의 "옛날말 해석"(1989)과 같은 아주 소략한 고어 해석 작업이 없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고어사전 편찬 작업은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 자료에 대한 해제류가 많지 않음도 아울러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서지학 방면의 연구로는 『조선 서지학 개관』과 『조선 고문헌 해제』라는 책이 있었다고 언급은 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책들을 볼 수가 없다.[6] 국어사 관련 자료에 대한 간략한 해제는 서윤범의 "훈민정음 연구를 위한 몇가지 기본 자료"(1957), 류렬의 "조선어 력사 연구 자료(고전 부분)"(1962), 김영황의 『언어학사전 1(조선어력사편)』(1986)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해제류에는 문헌 자체의 해설 외에 그 문헌에 담겨 있는, 봉건 질서와 그 이데올로기 및 종교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어 그들이 옛 문

[5] 계속
하는 언급만 해도 문제의 문헌 자료가 중간본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삼강행실도』의 언해문에 초간본에서는 한자를 섞어 쓰다가 중간본에서 한자를 다 빼어 버렸기 때문이다. 16세기 자료로는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상)』 등(그외, 다른 연구물에는 『이륜행실도』, 『정속언해』, 이른바 四書諺解類 등이 더 나타난다)이 언급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북한에서 새로 발굴되었다기보다 다른 경로를 통해 우리 쪽의 영인본이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영황의 그 책은 『노걸대언해』와 『박통사언해(중, 하)』를 인용할 때, 17세기 숙종대의 중간본을 이용하였으면서도 16세기 자료인 것으로 취급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바(인용된 예들이 다 중간본의 어형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그만큼 문헌 자료에 대한 북한 학계의 컴플렉스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 전의 연구물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대표적으로 홍기문의 『조선어 력사문법』), 이러한 잘못이 김영황에게서 비롯하는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인용 문헌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홍기문의 『리두연구』(1957)의 범례(특히, '2. 인용 문헌의 정확성에 대하여' 항목)에서 "이 저서에는 물론 고대의 금석 문자, 고문서 및 기타의 고전 문헌 등이 많이 인용되여 있는 중 그 대부분이 이런 서적, 저런 서적으로부터의 두 벌 인용인 것이다"라고 하여 그 결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국어사 연구와 국어학사 연구가 어떤 일면에서 부진한 점은 1960년대 이후 실천적인 면에 치중하게 된 그들의 연구방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료의 부족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가 본 문헌의 영인본은 『훈민정음』과 관련된—그것도 해례 부분만을 연구서 뒤에 덧붙여 놓은, 렴종률과 김영황의 『《훈민정음》에 대하여』(1982)가 유일한 책자이다. 북한의 과학원에서 이미 1954년에 『훈민정음해례본』을 사진판으로 간행해 내었다고 하나 필자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6] 『조선 서지학 개관』은 박정수의 "서평: 《조선 서지학 개관》에 대하여"(1956)를 통해서, 『조선 고문헌 해제』는 우세영의 "오. 빼. 빼뜨로바 저 《조선 고문헌 해제》"(1957)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 아쉽지만 이 두 책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역사학 방면에서의 문헌학에 대한 관심은 최영식의 "강좌: 조선 문헌학의 대상과 과업"(1965)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을 보는 시각을 잘 드러내어 준다.[7]

3. 국어사 방면

북한 학계에서는 국어사(내지 언어사)를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내적 언어사(혹은, 력사문법)'와 '외적 언어사(혹은, 민족어발전사)'가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김영황의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1978)의 머리말과 렴종률의 『조선어문법사』(1980)의 제1장에서 간단히 언급된 바 있는데, 김영황의 『언어학사전 1(조선어력사편)』(1986)의 '언어사' 항목(217면)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 내적 언어사는 '언어의 구조적 요소들의 점차적인 발전과 완성화 과정'의 언어 내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언어사요, 외적 언어사는 '그 언어가 복무하는 인간 집단의 력사적 발전에 따라 종족어로부터 민족어에로 발전하여 온 과정'의 언어 외적인 측면과 관련시키는 언어사라는 것이다(김영황 1986: 217). 달리 말하면, 내적 언어사는 '구조로서의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그 체계의 요소들을 변화시키는가 고찰' 하는 '언어 발전의 내적 측면'을 연구하는 언어사이며, 외적 언어사는 '언어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발전'이라는 '언어 발전의 외적 측면'을 연구하는 언어사(렴종률 1980: 4)라는 것이다. 내적 언어사류의 단행본으로는 대표적으로 렴종률의 『조선어문법구조사』(1964)와 『조선어문법사』(1980), 홍기문 외 2인의 『조선어사연구』(1964), 홍기문의 『조선어 력사 문법』(1966) 등을 들 수 있고, 외적 언어사류의 단행본으로는 대표적으로 김영황의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1978)와 류렬의 『조선말력사(1)』(1990)[8]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눈으로 북한의 국어사 연구성과를 살피기에 앞서, 북한 학계 자체에서는 그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정순기의 "공화국의 기치밑에 언어학연구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1988)의 다음 언급은 해방 후의 그들의 성과를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 어사연구분야에서도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
> 지난날의 어사연구는 주로 훈민정음과 훈민정음창제이후시기의 조선어발전력사를 연구한데 그치였고 기원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훈민정음

[7] 국어학사를 기술한 김병제의 『조선어학사』(1984)에서도 문헌 자료에 대한 解說註를 달 때 이러한 태도를 보임을 찾아볼 수 있다.

[8] 류렬의 『조선말력사』는 다섯 권으로 꾸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가 검토한 것은 현재 간행되어 나와 있는 권 1만이다. 북한에서는 일종의 시리즈로서 문법사인 『조선말력사』(전 5권) 외에, 어휘사인 『조선말력사어휘론』과 음운사인 『조선말력사어음론』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병제 1990 참조).

을 창제하기이전시기까지의 조선어력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못하고있었거나 매우 적게 언급하고있었다. 뿐만 아니라 통사형식의 조선어발전력사도 인민사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서술하지 못하고 어느 한 개별적 시기나 언어현상을 놓고 분석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어사연구는 조선어발전의 역사적 발전을 밝혀내고 조선어의 그 구조적특성을 통시태적인 견지에서 과학성있게 밝혀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어사연구가들은 주체의 사회력사관에 의거하여 조선어사를 집필하는 한편 조선어사연구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따르는 전문적인 연구를 강화하여나갔다.

조선어사연구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향가해석》, 《리두연구》, 《향가연구》, 《조선어문법구조사》를 낸데 뒤이어 1980년대에 《조선어학사》, 《세나라시기의 리두연구》 등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통사형식의 《조선말력사》(1-4권)를 집필하고 조선어 력사어음론과 력사어휘론 연구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어사분야에서 연구가 심화됨으로써 조선어기원의 《이원론》과 《신라중심설》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피줄과 언어를 같이하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과학적으로 서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였다.(정순기 1988: 9)

정순기의 이 언급을 통해 북한의 국어사 연구가 지향하는 바가 과거의 '내적 언어사' 내지 '력사문법'적 경향에서 '주체의 사회력사관에 의거'하여 이른바 '인민사'와 결부된 '외적 언어사' 내지 '민족어발전사'적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시기의 공시적 연구보다 국어사의 전 시기에 걸치는 통시적 연구를 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김영황의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가 가지는, 북한 학계에서의 시대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9] 5년 동안 열 번에 걸쳐 『문화어학습』에 연재된 류렬의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1981~1986)[10] 및 그것을 토대로 집필된 혹은 집필될 『조선말력사』(전 5권), 그리고 앞으로

[9] 이런 점에서 정순기의 언급에 김영황의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와 렴종률의 『조선어문법사』, 홍기문의 『조선어 력사 문법』 등—그 중에서도 특히 김영황의 저서가 등장하지 않은 점이 기이하게 느껴진다. 외적 언어사적인 입장에서 씌어진 최초의 저작이 김영황의 그 저서라는 점에서 특히 그런 생각이 든다. 엉뚱하게도 김병제의 『조선어학사』가 국어사 연구에 포함되어 있음도 주목된다.

[10] 이 글들은 그 부제가 '조선말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부터 '19세기 후반기 20세기 초의 조선말과 그 발전'까지로 되어 있다. 이른바 '항일 혁명 투쟁시기' 및 해방 후의 국어사는 김인호가 두 번에 걸친 연재물에서 마무리짓고 있다.

출간될 『조선말력사어음론』과 『조선말력사어휘론』이 가지는, 그쪽 나름으로의 의의를 새롭게 곱씹어 볼 수 있는 것이다.[11]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 학계에서의 主流가 누구인지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학계도 내적 국어사(내사)와 외적 국어사(외사)를 일찍부터 구분하여 왔으나 어휘사 서술에서만 외사를 중시할 뿐이지 음운사나 문법사의 서술에서는 내사 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이제 구체적인 주제별로 북한의 국어사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계통론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본다. 앞서 정순기의 언급에도 나왔었지만, 이른바 '국어 기원의 이원론'과 '신라중심설'과 관련하여 북한 학계는 대단히 경직된 사고를 보인다. 1970년대 이후 북한 학계에서는 국어 기원의 일원설과 고구려중심설의 고수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국어를 알타이어족에 소속시켜, 민족의 이동에 의해 아주 이른 시기에 국어가 알타이 공통조어에서 분기되어 나왔다는, 알타이어족설과 결부된 이기문 교수의 견해가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거의 정설화되어 받아들여져 왔었다. 물론 이에 대한 다른 견해도 많이 있어 왔었다. 또한 아주 이른 시기에 夫餘系의 언어와 한반도 남부의 韓系 언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는 견해도 이른 시기부터 언급되어 왔었다. 이 두 계통의 언어를 각기 이어받아 고대 삼국의 언어가 어느 정도 이질적인 양상을 띠었었는데, 특히 고구려어가 고대 일본어와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어 알타이 諸語와 고대 일본어를 이어주는 "잃어버린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이기문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표명된 바 있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그들은 '국어 기원의 이원론'(심지어는 "두 개 조선의 책동")이라고 비판을 가하면서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토대로 볼 때, 구석기 시대 이래 이미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古人'과 '新人' 단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며, 특히 신인 단계의 '승리산 사람'들을 이어받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말이 우리 말의 조상이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류렬 1990: 11–16).[12] 그들은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비로소 언어를 구사하기 시

[11] 이 문제는 그들의 '주체 언어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체 언어학'과 관련하여 특히 김병제의 "언어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언어연구 사업에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1990)를 통해 최근 북한 학계의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다.

[12] 최정후의 『조선어학개론』(1983) 제1장(특히 9면)에서는 우리 말이 우리 땅에서 살던 "조선옛류형"의 '원인'(遠人) 단계에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고인' 단계를 거쳐 '신인' 단계에 이르러 완성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通史인 『조선전사』 제1권(1979)에 피력되어 있는 내용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작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민족의 이동설에 입각한 알타이어족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민족, 다른 언어와의 친족관계가 전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우리 말은 원래부터 완전한 단일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견해는 이미 최정후의 "《우랄-알타이》 가설의 발생과 발달에 관한 몇가지 문제"(1963), 류렬의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1)"(1981), 최정후의 『조선어학개론』(1983)의 제1장 등에서도 피력된 바 있었다.

고대 삼국의 언어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그동안 우리 쪽에서는 통설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고대 삼국의 언어가 단지 방언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없었던 바는 아니다. 고대 삼국의 언어가 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라는 명칭도 주어 왔었는데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고구려어'를 국어사의 기술에서 몰아내려는 일이라고 몰아 세우고 있다(김수경 1989: 166-197). 물론 그들은 부여, 예, 맥 등의 '종족어'나 고대 삼국의 언어[13]는 다 방언적 차이밖에 없어 그 언어들은 결국 같았다는 견해를 내세운다.[14]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중국측 역사서의 기록을 많이 참조할 수밖에 없었으나, 고조선과 부여의 건국설화에 나타나는 언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김영황 1978: 18-26)도 특기되어야 할 것이다. 건국설화류에 나타나는 고유명사 표기를 자료로 채택하는 일이 우리 쪽에서는 계통론이나 국어사 연구의 정통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었고 단지 문화사적인 어원론의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있었다.

신라어를 기반으로 (후기) 중세국어가 형성되었음도 우리 학계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도 가장 강대했던 고구려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 삼국 가운데 가장 뒤처졌던 신라가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었느냐고 비판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발해가 고구려를 뒤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어는 연면히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15] 신라의 삼국 통일 후 고구려

[13] 그들은 고대 삼국의 언어에 대하여는 '종족어'라든지 '준민족어', '민족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는 듯하다. 류창선의 "조선에 있어서 종족어와 인민어의 구성에 대한 시론"(1950)에서는 국가어의 의미로 '인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대 삼국의 각 언어에 '인민어'의 명칭을 붙이고 있다. '종족어'와 '준민족어', '민족어'라는 용어는 소련 언어학 이론의 영향으로 사용되었는바,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민족어의 형성 문제가 북한 학계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고영근 교수가 맡은 "제2장 북한 언어학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제문제"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14] 이 문제에 대하여는 김수경에 의해 혹독한 비판을 당한 당사자의 한 사람인 김완진 교수가, 한 짤막한 글에서 김수경의 비판과 관련하여 방언과 언어의 성립 문제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밝힌 일이 있다. 김완진(1992)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살아 남아 있다가 고려가 건국됨으로써 그 법통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파악하기도 한다(최정후 1983: 27). 고구려어가 신라의 통일 이후 잔재만 남긴 것이 아니라 고려어의 기층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는 김영황의 "고려어 기초방언의 사적 고찰"(1989)도 그와 같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16] 이 문제는 역사관의 차이와 남북한의 정통성 시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학문적인 논제에 정치적인 문제를 너무 깊숙하게 끌어들이는 처사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영황의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1978)로부터 비롯하여[17] 류렬의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관한 연구』(1983), 김수경의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1989),[18] 류렬의 『조선말력사(1)』(1990)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주장은 결국 이른바 '두 개의 조선'을 고착화시키려는 '민족분열론'과 '민족허무주의' 및 '사대주의'에 의해, 그리고 일본군국주의를 다시 한반도에 이끌어 들이려는 '음모'에서 이러한 견해가 배태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같은 자료를 두고 해석한 결과가 입장의 차이에 의해 얼마나 미묘하게 갈라질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문자와 관련된 문제[19]는 국어사에 소속시키기도 마땅하지 않고 국어학사

[15] 이 문제는 역사관과 관련이 될 것이다. 북한 학계에서도 기왕에 통일신라라고 부르던 용어를 '후기신라'라고 고치고 삼국시대 이후의 시기를 발해—'후기신라'의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는 일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들이 말하는 고대문자설과 발해국문설 등도 어떤 일면에서는 고구려정통설과 관련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16] 이 문제의 골격은 이미 김영황의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1979: 124-9)에 간략하게 언급된 바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더 논의를 하고 있다.

[17] 그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통사인 33권짜리 『조선전사』의 권 1(1979)에도 이러한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18] 김수경의 이 저서는 제목이 매우 길 뿐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저서로서는 보기 드물게 참고문헌을 달고 있다는 점도 매우 특이하다. 거기에 언급된 우리 쪽 학자들의 논저는 강길운 한 편, 김방한 세 편, 김보겸 한 편, 김형규 한 편, 김영배 한 편, 김완진 한 편, 도수희 한 편, 이기문 세 편, 이숭녕 한 편, 박병채 한 편, 송민 두 편, 조재훈 한 편, 최학근 한 편 등이다. 김수경의 이 저서가, 그동안 북한 학계가 남한 학계에 대하여 행해 왔던 비판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학자명과 논저명을 나열해 가며 조목별로 본격적인 비판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쪽에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 문자학과 관련된 포괄적인 기술은 권종성의 『문자학개요』(1987)에 이루어져 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문자학 입문서는 우리 문자의 우수성과 창제의 창조성을 밝히고 나아가 우리 문자의 개혁안 작성시에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머리글에 언급되어 있다. 입문서로서는 아주 충실하게 구성된 저서라고 평가될 수 있다.

에 소속시키기도 마땅하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국어사 방면에 포함시켜 언급하도록 한다.[20] 북한 학계에서는 우리 민족이 한자를 들여와 사용한 시기를 고대 삼국시대 훨씬 이전으로 소급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고조선 시대에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영황(1978: 15)와, 김영황(1986: 183-4)의 '한자' 항목 참조]. 김영황은 고조선의 '朝鮮'이 이두식 표기라고 파악하여 이두도 이미 기원전 7세기 경에는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1] 이에 비해 홍기문의 『리두연구』(1957)는 고구려에서 발생하여 신라에서 완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우리 학계에서도 홍기문과 같은 견해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대문자설은 북한에서는 거의 공인되다시피 하고 있다. 우리 쪽에서는 간혹 재야학자들이 그런 학설을 내세우고 나오기도 하지만 전혀 정통적인 견해로 인정받고 있지 못함에 비해, 북한에서는 1970년대 이후의 통사류의 저서에서 거의 예외없이 고대문자설을 그럴 듯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발해국문설까지 내세우는 것도 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주체의 언어관'에 의해 이러한 견해가 득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은 대개 이두를 차자표기 전반을 다 가리키는 용어라고 파악한다.[22] 대표적으로 류렬의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관한 연구』(1983)에서 인명, 관직명, 지명의 차자표기를 '리두'라고 부르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류창선의 "조선에 있어서 종족어와 인민어의 구성에 대한 시론"(1950)과 그 속편인 "서사어로서의 향찰과 그 표기에 대한 시론"(1950)에서는 '구두어인 지역적 종족어로서의 鄕言'과 그것을 기록하는 '서사어로서의 鄕札'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향찰'은 차자표기 전반을 가리키고 '이두'는 공문서에 사용된 차자표기를 가리킨다. 그는 조선 초기의 문헌들은 향찰을 이두와 혼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두는 조선시대의 명칭이기 때문에 향찰과 구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류창선의 이러한 견해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되고 만 듯하다. 향가를 표기한 '향찰'에 맞추기 위해 좁은 의미의 이두를 '리찰'(吏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홍기문 1957, 김영황 1978, 김병제 1984 등). 넓은 의미의 이두는 특히 김영황의

[20] 그러나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 동기 등에 대한 글은 국어학사 방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21] 이런 견해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 한국한자음[東音]의 형성 시기 문제에 대한 해명이다. 고조선 시대에 이미 이두가 쓰였다면, 우리 한자음은 중국 上古音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 한자음이 상고음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견해는 대표적으로 류렬의 『조선말력사(1)』(1990: 32-41)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차자표기에 사용되는 한자는 '리두자', '리두문자', '리두글자' 등의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와 류렬의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관한 연구』에서, 좁은 의미의 이두는 특히 홍기문의 『리두연구』에서 깊이있게 논의된 바 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이두를 연구할 때에는 의미의 파악과 후대의 讀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심이 많을 뿐 당대의 讀音에는 관심이 없는 반면, 넓은 의미의 이두(특히 고유명사 표기)를 연구할 때에는 의미의 파악뿐 아니라 당대의 독음 파악에 주된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학자마다 그 해독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고대국어의 음운 체계 파악에서도 큰 차이를 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음운사에 대하여는 가장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23] 음운체계와 관련하여, 특히 '고대국어'(그들의 개념으로는 삼국시대 이전의 국어)의 음운체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원래 우리말이 개음절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데에는 대개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듯하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류렬의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관한 연구』와 『조선말력사(1)』에 강하게 담겨 있다. 고대국어의 자음 체계는 된소리, 거센소리가 없고 유성-무성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모음체계도 중모음은 없고 'ㅏ, ㅓ, ㅗ, ㅜ, ㅣ' 정도의 단모음만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고대국어 이후의 음운체계의 파악은 우리의 견해와 대차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중세국어의 'ㅿ', 'ㅸ'과 같은 것이 하나의 음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ㅅ'이나 'ㅂ'이 변화된 자리에 쓰이는 특수한 표기의 일종이라는 주장도 렴종률의 "훈민정음의 《ㅿ》는 음운이 아니라 어음의 특수한 표기"(1987)와 "훈민정음의 《ㅸ》는 음운이 아니라 어음의 특수한 표기"(1988)에 피력되어 나타난다. 이 견해가 이미 그의 『조선어문법사』(1980)와, 김영황과의 공저인 『《훈민정음》에 대하여』(1982)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견해를 가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영순과 최정후의 "《훈민정음》 창제자들의 음운에 대한 견해"(1963)에도 이와 유사한 견해가 나타난 적이 있다고 한다.[24] 음운현상에 대하여는 모음조화, 구개음화 정도가 언급되었다.

그런데 아주 이른 시기의 글들이기는 하지만 전몽수의 일련의 논문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탁월한 관찰과 기술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의 "훈민정음의 음운 조직"(1949)과 "조선어 음운론(1-3)"(1949)이 그것들인바,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점이 인상적이다. 그런데

[23] 이 방면 연구에 대한 평가는 최명옥 교수가 맡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다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히 언급하도록 한다.

[24] 필자는 이 논문을 읽어 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정보는 신지영(1991)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는 앞선 논문들에서는 논리를 잘 이끌어 나오다가 "조선어 음운론(3)"에 와서 전혀 엉뚱하게도 발을 수렁에 헛디디는 과오를 범하였다. 이 논문은 앞의 논문들과는 그 수준차가 아주 컸었는데 이 때문에 더 연재될 계획이었던 그의 논문들이 여기에서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법사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많은 연구가 있다. 먼저, 단행본으로는 통시적 연구로 렴종률의 『조선어문법구조사』(1964)[25]와 『조선어문법사』(1980)[26], 김영황의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1978), 류렬의 『조선말력사(1)』(1990)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학자들의 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령있게 기술한 문법사적인 내용은 김영황의 책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기술에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15세기 국어에 대한 기술에서 '말줄기 모음'인 'ㅗ, ㅜ'가 존경 표시와 관련되어 있다든지(278면), 사역에서 피동이 발달되어 나왔는데 사역이나 피동이나 다 같이 '시기'(내지 '令只')의 변화형인 '기, 히, 이, ㅣ'에 의해서 이른바 '상' 을 표시하게 되었다든지(284면), 'ㅣ'에서 'ㅣ'가 탈락하여 'ㄴ'으로 되고 그것이 종결어미 'ㅡ다'와 결합하여 의문형어미 'ㅡㄴ다'로 쓰이거나 그 자체로 관형형 어미가 되었다든지(292면) 하는 추정만 해도 그 근거를 어떻게 가져다 댈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은 그 책의 군데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류렬의 책 권 1은 고대국어에서부터 10세기 초의 국어만을 다루고 있다. 고대국어의 문법 구조와 그 주요 특징으로는 '토'가 붙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체언과 용언의 형태가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 단어의 결합에서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놓인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88-90면). 첫번째의 것은 제약된 고유명사 표기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우리 말의 문법형태가 어휘형태에 비해 뒤늦게 발달되어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 두번째의 것은 문법형태가 발달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당연히 체언과 용언의 분화가 있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세번째의 것은 국어의 성격상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10세기초에 이르는 그의 '중세전기조선말'이 보이는 문법 구조와 그 특징은 첫째, 품사론적 특징으로서 품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문법형태가 발달되어 있고 '바', '다/ㄷ/도', '가/고' 등의 불완전명사가 발생하였으며, 보조동사의 쓰임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형태론적 특징으로는 '토'가 한편으로는 어간 끝소

[25] 필자는 아직 이 책을 입수하지 못하여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26] 렴종률의 이 책은 고대국어와 중세국어만을 대상으로 한 문법사가 다루어져 있어 아주 균형잡히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의 문법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리가 갈라져 나와 형성되기도 하고('-ㄴ', '-ㄹ'과 '-ㄴ'의 변종형태로부터 형성된 '-ㅁ'), 다른 한편으로는 단어가 추상화, 문법화되어 형성되기도 하였다고(대명사 '이'에서 주격의 '-이'로, 부사 '도/두'에서 조사 '-도/두'로 형성되는 등의 일) 주장하였다. 셋째, 문장론적 특성으로는 현대국어와 유사한 통사론적 특성을 몇 가지 들고 있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는, 일부 그럴듯한 내용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쉽게 수긍하기 힘든 내용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의 견해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기상천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주장과 추정만 하기보다는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일에 크게 힘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형의 논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홍기문의 책, 렴종률의 책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단행본으로서 공시적 기술을 행한 연구로 주목되는 것은 황부영의 『15세기 조선어 존칭범주의 연구』(1959)이다. 제한된 문헌 자료를 통해서이지만 선어말어미에 의한 경어법의 실현 양상을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바, 암시에 찬 기술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저이다. 지금의 視點으로 볼 때 그 한계는 쉽게 짐작될 수 있는 바이지만 언해 문헌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불모지 상태에서 그만한 연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다. 710여면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가 거의 전부 경어법 선어말어미가 실현되는 양상을 다루는 데 할애되어 있다는 점, 기본 형태의 설정에 문제가 많다는 점, 용어의 불투명성[27]이 곳곳에 노출된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문법사에 대한 논문은 대개가 문법형태의 기능 파악과 변천 양상을 다루는 점이 공통적이다. 격조사, 후치사, 일부의 선어말어미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인 것이다. 워낙 제한된 연구 인원과 적은 문헌 자료를 통해 하는 연구에 제약이 많았으리라는 사정은 능히 짐작되지만 연구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그 연구 성과 중에서 특히 주격 조사 '-가'의 발생을 다룬 김영황의 "주격토 《가》의 력사에 대하여"(1986)는 16세기 말 이후 성조가 소멸되면서 주격 조사 '-ㅣ'가 통합된 형태가 동음이의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구분하고 강조할 목적으로 '-가'를 그 뒤에 덧붙이게 되었다고 파악하면서 특히 '-ㅣ'의 변칙적인 첨가와 '-ㅣ'에 의한 주격 형태 조성의 병존 현상이 'ㅐ, ㅔ, ㅚ' 등 이중모음의 단모

[27] 예컨대 경어법의 세 하위범주에 사용되는 선어말어미의 용법에 대해 '존경'과 관련된다는 일률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누구에 대비해서 '존경'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경'이라는 용어 자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비판은 필자가 그쪽의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음화 과정과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 흥미롭다.[28] 그리고 하치진의 학위 논문인 "조선어 《시-태》에 대한 력사적 고찰》"(1964)도 주목된다. 이 논문은 '시칭 범주'가 고대국어에서는 '태-시'의 체계였었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시-태'의 체계로 변천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려는 연구이다. 인용된 문헌 자료가 너무 제약되어 있어 흠이 되기는 하나 음미해 볼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어휘사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진한 편이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쟁, 글말체와 입말체의 문제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는바, 이에 대한 것은 거의 通史的인 단행본에 맛보기로 끼어 들어 있을 뿐이다.[29] 어휘사에 대한 것이 논문에서 언급된 경우는 극히 적다. 논문으로는 전제수의 "단어의 어휘적 의미의 변화와 문법적 형태"(1963), 최정후의 "조선어 어휘구성의 발달에 대하여"(1966), 김영황의 "고려어 기초방언의 사적 고찰"(1989)과 "우리말로 되여버린 한자말"(1989) 정도가 눈에 띌 뿐이다.

어원론에 관한 것은 전몽수가 해방 전에 썼던 글들을 묶어 단행본으로 펴낸 『조선어원지』(1947)밖에 없다.

4. 국어학사 방면

북한의 국어학사 방면 연구성과는 김병제의 『조선어학사』(1984)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각 주제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바 아니지만 단행본으로 간행된 연구서는 이 책자가 유일한 것이다. 아마도 연구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전에는 국어학사류가 씌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먼저 김병제의 이 저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개별 주제별로 논의된 국어학사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대로 김병제의 『조선어학사』는 국어사와 국어학사를 엄격하게 준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국어의 형성 문제를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30] 일러두기에서 '개별적인 학자의 언어학적 견해와 훈민정음이나 이두와 같은 집체적인 견해의 전부를 다 논하지 않고 어학사

[28] 이 견해는 그의 "《ㅐ, ㅔ, ㅚ, ㅟ, ㅢ》 등 모음계렬의 력사적변화에 대하여》"(1987)에도 되풀이되어 있다.

[29] 홍기문의 『조선어 력사 문법』(1966)과 렴종률의 『조선어문법사』(1980)는 일종의 국어사의 通史를 다룬 책들이다. 여기서의 '문법'과 '문법사'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다. 그런데 이 책들은 음운사와 좁은 의미의 문법사(특히 형태사)로 구성되어 있어 어휘사는 전혀 언급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북한 학계에서도 어휘사에 대한 연구는 덜 되어 있음을 말한다 할 것이다. 사실상 어휘사가 어느 정도 언급되어 있는 책들은 김영황의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1978), 최정후의 『조선어학개론』(1983), 류렬의 『조선말력사(1)』(1990) 정도가 아닌가 한다.

적인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는 주요한 부분만을 다루었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봉건적인 것, 사대주의적 요소가 있는 것 등은 그 견해의 부당성과 비과학성을 밝혀 비판하였다'고 하고 있다. 머리말에서는 '주체의 방법론'에 의지하여 서술하되 우리나라 사람이 쓴 우리말 연구에 관한 것만 서술대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기는 네 단계로 나누어 '고대 시기부터 14세기 말까지', '15세기 가운데 시기부터 16세기 앞 시기', '16세기 뒤 시기부터 19세기 뒤 시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10년대'까지로 구분하여 설정한다고 머리말에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두번째 단계와 세번째 단계의 것을 합쳐서 다루고 있다.

이 저서는 국어학사를 국어와 국문에 대한 인식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저서는 대체로 시대적 배경, 학자, 학설 순으로 배열하되, 먼저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아주 간략하게 '주체적 관점'에서의 비판을 덧붙이는 식으로 전개되어 있다.

제1편은 고대에서부터 14세기 말까지의 우리 말과 서사체계의 발생과 발전을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국어사에서 언급됨 직한 내용이 대폭 들어 있다고 비판을 받기 좋게 되어 있다. '고대 및 세나라 시기의 언어관계' 항뿐 아니라 '조선한자음의 규범'과 같은 엉뚱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앞 시기 학자들의 이두연구' 항이 여기에 들어 있어 편년체적인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먼 면도 보이고 있다.

제2편은 '제1장 민족 글자: 훈민정음', '제2장 16세기 이후의 우리 말과 글자에 대한 연구', '제3장 17세기 후반기—19세기 전반기의 조선말 연구'로 짜여져 있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문헌 자료는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 최세진의 『훈몽자회』,[31]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운고』, 이사질의 『훈음종편』,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 홍계희의 『삼운성휘』, 홍양호의 "경세훈민정음도설서"와 "공주풍토기", 황윤석의 "자모변"과 "화

[30] 김병제는 국어학사를 우리 말과 글자에 대한 인식사 내지 의식사로 파악하기 때문에 첫 부분에서 우리 말의 형성과 글자생활의 발전과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3편에 가서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국어 연구가 이루어진 연구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글자에 대한 연구는 제외시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 김병제는 'ㄱ[其役]', 'ㄴ[尼隱]' 등에 붙어 있는 한자를 자모의 이름으로 파악하였다. 물론 이 한자들은 각각 자모의 용법을 보이는 것일 뿐이다. 또, 그는 'ㄲ, ㄸ' 등의 각자병서를 최세진이 쓰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최세진의 언어학적 견지에서는 하나의 오점이라고 비판하였으나 당대(16세기 초)의 문헌에 각자병서가 전폐되어 쓰이지 않았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게 된 것이다.

음방언자의해", 이덕무의 "한죽당섭필", 정동유의 『주영편』, 정약용의 『아언각비』, 유희의 『언문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석범의 『언음첩고』, 정윤용의 『자류주석』과, 그외 『동환록』과 『탐라지』 등이다. 이들 가운데 적어도 몇 자료는 직접 보지 못한 채 다룬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우리 쪽의 영인본이나 현대판을 이용하였거나 우리 쪽의 국어학사류 저서를 이용하였는지도 모른다.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을 이용한 것이 그 단적인 증거로 생각된다. 이 手寫本은 1968년에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영인한 책만이 현재 남아 있고 京都大學 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던 원본은 앞의 영인본을 만들기 위해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은 직후 망가져 버려서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32]

제3편은 제1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이함을 보인다. 여기서 다루어진 문헌은 강위의 『동문자모분해』, 권정선의 『정음종훈』, 리봉운의 『국문정리』, 지석영의 "신정국문"과 "대한국문설", 국문연구소 위원들의 "국문연구안"[33]과 "국문연구의정안", 주시경의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말의 소리』, 최광옥의 『대한문전』 등이다. 김병제는 특히 주시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어문전음학』에 대해서는 국어, 국문의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역사주의적 원칙에서 우리 말 소리의 특성과 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데 힘썼으며 맞춤법에서 형태주의적 원칙을 세우는 데 기여한 것으로, 『국어문법』은 최초의 과학적 문법서인 것으로, 『말의 소리』는 특히 가로풀어쓰기를 시범적으로 보인 점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훈민정음에 대하여는 두 권의 단행본이 나와 있고 많은 논문들도 씌어졌다. 전몽수와 홍기문의 『훈민정음 역해』(1949), 렴종률과 김영황의 『《훈민정음》에 대하여』(1982)는 훈민정음의 해설서의 성격을 띄는 단행본이다. 앞의 책은 홍기문(1946)의 몇 자료를 재수록한 자료 부분 앞에 "훈민정음 해제"라는 제목 아래에 "훈민정음의 성립과정"(홍기문 집필)과 "훈민정음의 음운조직"(전몽수 집필)의 두 편의 글을 싣고 있다. 홍기문의 글은 그의 『정음발달사』(1946)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전몽수의 글은 『조선어연구』 제1권 제1호에 게재되었던 그의 논문 "훈민정음의 음운 조직"(1949)[34]을 그대로 재수록한 것이다. 뒤의 책은 집필자의 분담 부분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32] 김병제 자신도 이 책에서 이 수사본이 근년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고 김영황의 『언어학사전 1(조선어력사편)』의 '경세훈민정음' 항에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의 영인본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는 뒤에서 언급될 "국문연구안"과 "국문연구의정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해질 수 있다.

[33] 이 책에는 주시경, 권보상, 송기용, 지석영의 "국문연구안"만 언급되었다.

[34] 이 논문에 대한 평가는 앞서 국어사 방면의 서술에서 이미 행한 바 있다.

'I. 훈민정음의 창제와 《훈민정음 해례》의 편찬'과 'II. 《훈민정음 해례》(원문번역)'은 김영황이 담당하고 'III. 《훈민정음 해례》의 내용에 대하여'는 렴종률이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의 내용에는 렴종률이 그전에 『조선어문법사』(1980)를 통해 주장해 온, 'ㅿ', 'ㅸ' 등이 음운이 아니라 'ㅅ', 'ㅂ'이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된 어음(음성)의 특수한 표기일 뿐이라는 그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된다.[35] 이와 같이 'III' 부분은 단순한 해설만이 아니라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그 견해는 그대로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 너무 많은 것이 흠이다.

훈민정음에 대한 국어학사적 논문으로는 김수경의 "훈민정음 성립사고"(1949), 전몽수의 같은 제목으로 된 두 편의 연재 논문 "조선 어문에 관한 력사적 고찰"(1949), 김병제의 "조선의 고유문자 훈민정음"(1956), 렴종률의 "우리의 고유문자 《훈민정음》의 창제"(1963), 류렬의 "민족문자 《훈민정음》 창제의 문자사적 의의"(1963)와 "고유한 우리 글자 훈민정음창제의 주요요인"(1986), 김인호의 "훈민정음의 창제와 그 우수성"(1984) 등, 그리고 그 외에 몇 편의 해설적인 글들이 더 있으나 내용은 앞의 두 단행본에서 언급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밖에도 문자론적인 관심에서 씌어진 몇 편의 글이 있는데 다 일반사람들에게 읽히는 교양물 차원에 머무는 것들이다.

리만규의 "국문 연구 단체의 연혁"(1949)은 언문청, 국문연구회,[36] 조선어학회 및 그들의 어문연구회의 연혁을 살피고 있는데 주된 관심은 그들의 어문연구회가 설립된 연혁과 목적을 밝히는 데에 주어져 있다. 개별 학자와 학설에 대한 글은 신정아의 "류희와 언문지"(1961), 류창선의 "김만중과 모국어"(1962) 등을 하나의 부류로, 정렬모의 "언문변종설"(1963), 김영황의 "오주 리규경의 언어학 연구"(1966) 등을 또 하나의 부류로 해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간단한 해설논문 유형이고 후자는 어느 정도 본격적인 연구논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글이든간에 전체적으로 스무 편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주시경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은 편이다. 신구현의 "국문 운동의 선각자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업적"(1949)과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업적"(1949),[37] 박성의의 "문자 개혁에 대한 주시경 선생의 사상"(1956), 정렬모의 "조선어 문법에 대한 주시경 선생의 견해"(1956)와 "탁월한 언어학자 주시경 선생"(1961), 서윤범의 "탁월한 국어 학자 주시경 선

[35] 김영황은 'ㅿ'과 'ㅸ'에 대해 렴종률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36] 구한말 학부 내에 설립된 국문연구소를 국문연구회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문연구소의 위원이었던 이능화의 "구한국시대의 국어연구회를 회고하면서"(신생 2. 9., 1929)를 연상하게 된다.

[37] 이 두 편의 글은 이어지는 글이다.

생"(1958), 황부영의 "주시경 선생의 과학적 리론과 견해"(1962), 김례추의 "조선어의 문법적 단위들과 토에 대한 주시경의 견해"(1964), 김백련의 "주시경의 품사리론"(1966) 등이 그것인바, 다 1966년 이전에 씌어진 글들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에서 『주시경 유고집』(1957)을 펴낸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그만큼 주시경이 그들의 취향에 맞았을 뿐 아니라 주시경의 제자들(김두봉, 정렬모, 이상춘 등)이 당시의 북한 학계에 꽤 많이 포진하고 있었음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38] 정렬모(1956), 황부영(1962), 김례추(1964)의 글들은 돋보이는 바가 많다. 특히 김례추(1964)는 주시경의 문법단위들에 대하여 매우 독특한 시각으로 깊이 있는 분석과 재해석을 꾀하고 있어서 지금의 관점으로도 곱씹어 읽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외 김두봉도 두 번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김수경의 "조선 어학자로서의 김두봉 선생"(1949)과 김금석의 "김두봉 저《조선말본》간행 40주년에 제하여"(1956)가 그것이다. 김두봉이 숙청되기 전에 씌어진 글들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39]

이와 같이 통사격인 김병제의 『조선어학사』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국어학사 연구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5. 마무리

이 글에서 다룬, 북한의 국어사 및 국어학사 방면의 연구는 그 편수가 썩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북한 학계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자료가 워낙이 적을 뿐 아니라 연구자 수도 적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덧붙여 196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 동안 이 방면 연구의 공백기까지 있었던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논문으로 씌어졌던 글들이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저서에 포함되어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서에 들어 있던 내용이 거의 수정이 없이 뒤에 별개의 연구 논문으로 꾸려지기도 하는 일을 볼 수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논저가 한두 편이 아닌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점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들의 연구성과가 극히 제한된 숫자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성과를 접하게 될 때

[38] 이러한 사정에 대한 언급과 개별 논문들에 대한 평가는 이미 고영근(1988)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39] 주시경과 김두봉을 평가하는 글들은 『주시경학보』의 '북한의 한힌샘 연구'라는 칼럼에 해설주가 붙은 상태로 몇 차례에 걸쳐 소개된 바 있다.

보다 뚜렷한 평가결과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한 그들의 연구물 가운데에 곰곰이 되씹어 음미할 만한 대상이 없지는 않았지만 상당수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수용하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살고 있는 체재의 문제를 떠나서, 논리적인 전개가 투박하거나 명징적인 논거가 부족한 주장과 견해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단순히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일에 만족하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사관이나 방법론에 입각하여 새로운 실체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면서 또다른 허상을 만들어 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준의 문제를 떠나 특히 1980년대 이후 그들의 연구가 보이는 공허함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앞으로 그들의 논저를 읽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북한의 국어사 및 국어학사 연구 논저목록〉

고대 및 중세사연구실(1957ㄱ) '조선, 삼국시대의 금석문,' 력사과학 2.

고대 및 중세사연구실(1957ㄴ) '조선, 삼국시대의 금석문(하),' 력사과학 4.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57) 주시경 유고집.

과학원(1954) 훈민정음(해례본 사진판), 과학원출판사.

곽용권(1984) '글자의 발생발전과 우리 글자,' 문화어학습 4.

권종성(1975) '단어형태화와 단어화란 무엇인가?,' 문화어학습 2.

권종성(1987) 문자학개요,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근세 및 최근세사연구실(1959) '애국문화계몽운동에 관한 참고자료,' 력사과학 4.

김광익(1962) '우리 글'자의 자모 수와 자모 차례의 발전,' 말과 글 1.

김금석(1956) '김두봉 저《조선말본》: 간행 40주년에 제하여,' 조선 어문 2.

김남수(1963) '동명사의 의미분석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조선어학 2.

김례추(1964) '조선어의 문법적 단위들과 토에 대한 주시경의 견해,' 조선어학 6.

김백련(1966) '주시경의 품사이론,' 어문연구 4.

김백련(1987) '조선어모음체계문제,' 언어학론문집 7,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김백련(1989) '《디>기》 유형 어음변화문제,' 조선어문 1.

김병제(1955) 우리 글이 걸어온 길, 교육도서출판.

김병제(1956) '조선의 고유 문자 훈민 정음,' 조선 어문 1.

김병제(1961ㄱ) '조선 민족어 형성에 관하여,' 조선 어학 1.

김병제(1961ㄴ) '조선 민족어 형성에 관하여,' 조선 어학 3.

김병제(1984) 조선어학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김병제(1990) '언어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언어연구 사업에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 조선어문 2.

金壽卿(1949ㄱ) '《龍飛御天歌》에 보이는 揷入 子母의 本質: 特히 問題의 現實性에 비추어,' 조선어 연구 1.2.

金壽卿(1949ㄴ) '訓民正音 成立史考,' 金日成大學 歷史·文學硏究 論文集.

김수경(1949ㄷ) '조선 어학자로서의 김두봉 선생: 선생의 탄생 60 주년을 맞이 하여,' 조선어 연구 1.3.

김수경(1989)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양출판사.

김영숙(1961) '19세기 말—20세기 초 애국문화계몽운동,' 력사과학 1.

김영황(1958) '월인석보,' 조선 어문 3.

김영황(1963) '조선 민족어의 형성을 론함,' 조선 어학 3.

김영황(1965) '《훈민정음》의 음운이론,' 조선 어학 1.

김영황(1966) '오주 리규경의 언어학 연구,' 어문연구 3.

김영황(1978)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김영황(1984) '우리의 우수한 민족글자: 훈민정음(훈민정음창제 540돠을 맞으며),' 문화어학습 1.

김영황(1986ㄱ) 언어학사전 1(조선어력사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영황(1986ㄴ) '주격토 《가》의 력사에 대하여,' 조선어문 1.

김영황(1987) '《ㅐ, ㅔ, ㅚ, ㅟ, ㅢ》 등 모음계렬의 력사적 변화에 대하여,' 조선어문 1.

김영황(1988) '15세기 중세조선어의 성조현상에 대하여,' 조선어문 2.

김영황(1989ㄱ) '고려어 기초방언의 사적 고찰,' 조선어문 4.

김영황(1989ㄴ) '우리 말로 되여버린 한자말,' 문화어학습 3.

김인호(1982) '우리 글자는 언제부터 가로 썼는가?,' 문화어학습 4.

김인호(1984) '훈민정음의 창제와 그 우수성,' 력사과학 1.

김인호(1985) '우리말이 걸어온 력사(11): 항일 혁명 투쟁시기 우리말의 찬란한 개화 발전,' 문화어학습 3.

김인호(1986ㄱ) '15—16세기 우리 글자의 보급에 대하여,' 력사과학 2.

김인호(1986ㄴ)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12): 해방후 당의 령도밑에 이룩된 우리 말의 발전,' 문화어학습 2.

김인호(1987) '훈민정음은 과학적근거에 기초하여 창제된 가장 발전된 글자,' 언어학론문집 7,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김인호(1989ㄱ) '옛날말 해석,' 문화어학습 1.

김인호(1989ㄴ) '옛날말 해석,' 문화어학습 3.

김종오(1949ㄱ) '古語 例解(1),' 조선어 연구 1.1.

김종오(1949ㄴ) '古語 例解(2),' 조선어 연구 1.2.
김종오(1949ㄷ) 'ㅎ音攷,' 조선어 연구 1.2.
김종오(1949ㄹ) '古語 例解(3),' 조선어 연구 1.3.
김종오(1949ㅁ) '古語 例解(4),' 조선어 연구 1.4.
김종오(1949ㅂ) '古語 例解(5),' 조선어 연구 1.5.
김종오(1949ㅅ) '〈處容歌〉에 대하여,' 조선어 연구 1.5.
김종오(1949ㅇ) '古語 例解(6),' 조선어 연구 1.6.
김종오(1949ㅈ) '〈動動〉에 대하여,' 조선어 연구 1.6.
김종오(1949ㅊ) '古語 例解(7),' 조선어 연구 1.7.
김종오(1949ㅋ) '古語 例解(8),' 조선어 연구 1.8.
김종오(1950) '古語 例解(完),' 조선어 연구 2.3.
력사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연구실(1958) '통일신라시대의 금석문,' 력사과학 1.
렴정권(1957) '문화유산으로서의 《악학궤범》,' 조선 어문 2.
렴종률(1958) '15－16세기 조선어의 여위격과 그의 문법적 의미(1),' 조선 어문 6.
렴종률(1959ㄱ) '15－16세기 조선어의 여위격과 그의 문법적 의미(2),' 조선 어문 1.
렴종률(1959ㄴ) '15－16세기 조선어의 속격과 그의 의미,' 조선 어문 2.
렴종률(1963) '우리의 고유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조선 어학 4.
렴종률(1964ㄱ) '조선어 용언 어간과 어간 모음의 력사,' 조선 어학 1.
렴종률(1964ㄴ) 조선어문법구조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렴종률(1980) 조선어문법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렴종률(1987) '훈민정음의 《△》는 음운이 아니라 어음의 특수한 표기,' 조선 어문 1.
렴종률(1988) '훈민정음의 《ㅸ》는 음운이 아니라 어음의 특수한 표기,' 조선 어문 1.
렴종률(1990) '우리의 민족문자창제에 구현된 훈민정음 창제자들의 음운리론,' 조선 어문 1.
렴종률 · 김영황(1982) 《훈민정음》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류 렬(1958ㄱ) '상고 조선말의 어음체계(1),' 조선 어문 4.
류 렬(1958ㄴ) '상고 조선말의 어음체계(2),' 조선 어문 6.
류 렬(1958ㄷ) '《훈민정음》이란 어떤 책인가?,' 말과 글 5.
류 렬(1960) '리봉운의 《국國문文정正리理》에 대하여: 간행 65주년을 기념하여,' 말과 글 2.
류 렬(1961ㄱ) '조선말의 모음 조화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1),'

조선 어학 2.
류 렬(1961ㄴ) '조선말의 모음조화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2),' 조선 어학 3.
류 렬(1961ㄷ) '《훈민 정음(해례)》에 대하여: 그 창제 515돐을 맞이하여,' 말과 글 1.
류 렬(1961ㄹ) '《훈민정음(해례)》에 대하여,' 조선 어학 4.
류 렬(1962) '조선어 력사 연구 자료(고전 부분),' 조선 어학 4.
류 렬(1963) '민족문'자 《훈민정음》 창제의 문'자 사적 의의,' 조선 어학 4.
류 렬(1964) '언어발달의 측면에서 본 조선어,' 조선 어학 5.
류 렬(1965) '송광사본 《은중경》(언해)과 전라도본 《선가구감》(언해)을 통해 본 몇가지 문제,' 조선 어학 3.
류 렬(1981ㄱ)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1): 조선말은 언제 생겨났는가?,' 문화어 학습 3.
류 렬(1981ㄴ)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2): 조선말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의 단일한 민족어이다,' 문화어학습 4.
류 렬(1982ㄱ)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3):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자기의 글자를 가지고 있었다,' 문화어학습 1.
류 렬(1982ㄴ)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4): 고구려, 백제, 신라는 글자생활도 같이 하여왔다,' 문화어학습 2.
류 렬(1982ㄷ)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5): 세나라시기이후 고구려의 말은 우리 말의 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놀았다,' 문화어학습 3.
류 렬(1983ㄱ)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5): 세나라시기의 우리 말은 발해와 후기신라의 말에 계승발전되였다,' 문화어학습 1.
류 렬(1983ㄴ)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6): 고려의 건국에 의한 조선말 발전력사의 새로운 전환,' 문화어학습 2.
류 렬(1983ㄴ)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7): 고려이래의 조선말의 통일적발전은 리조 이후에도 더욱 강화되였다,' 문화어학습 4.
류 렬(1983ㄹ)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관한 연구: 사람, 벼슬, 고장 이름의 표기를 통하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류 렬(1984ㄱ)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8): 훈민정음창제이후 15-16세기 말 조선말의 발전,' 문화어학습 3.
류 렬(1984ㄴ)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9): 17-19세기 전반기 조선 말과 그 발전,' 문화어학습 4.
류 렬(1985) '우리 말이 걸어온 력사(10): 19세기 후반기 20세기 초의 조선말과 그 발전,' 문화어학습 2.
류 렬(1986ㄱ) '고유한 우리 글자 훈민정음창제의 주요 요인,' 조선어문 1.

류 렬(1986ㄴ) '《혁거세》와 《거서간》에 대하여(고구려의 《류리명》, 《고추가》와 결부하여),' 조선어문 2.
류 렬(1987) '조선말에서의 토의 형성에 대한 력사적고찰: 말줄기의 끝소리가 갈라져 나와 형성된 토,' 조선어문 3.
류 렬(1989) '조선말에서의 토의 형성에 대한 력사적 고찰,' 조선어문 4.
류 렬(1990ㄱ)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의 길을 열어나가자,' 문화어학습 2.
류 렬(1990ㄴ) 조선말력사(1), 사회과학출판사.
劉昌宣(1949ㄱ) '강좌: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解釋(1),' 조선어 연구 1.2.
劉昌宣(1949ㄴ)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解釋(2),' 조선어 연구 1.3.
劉昌宣(1949ㄷ)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解釋(3),' 조선어 연구 1.4.
劉昌宣(1949ㄹ)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解釋(4),' 조선어 연구 1.5.
劉昌宣(1949ㅁ)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解釋(5),' 조선어 연구 1.6.
劉昌宣(1949ㅂ)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解釋(끝),' 조선어 연구 1.7.
류창선(1950ㄱ) '조선에 있어서 種族語와 人民語의 구성에 대한 試論,' 조선어 연구 2.1.
劉昌宣(1950ㄴ) '書寫語로서의 鄕札과 그 表記에 대한 考察,' 조선어 연구 2.3.
류창선(1955) '고려 가요의 내용 및 형태에 대한 사적 고찰,' 력사과학 6.
류창선(1956) '신라 향가의 독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론의,' 조선 어문 5.
류창선(1958) '홍기문 저 《향가해석》에 대하여,' 조선 어문 1.
류창선(1962) '김만중과 모국어,' 말과 글 8.
리근영(1958) '조선어 후치사에 대한 고찰,' 조선 어문 5.
리근영(1962) '격토 《가》의 발생에 대하여,' 조선 어학 3.
리근용(1986) '글자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가?,' 문화어학습 1.
리만규(1949) '국문 연구 단체의 연혁(沿革),' 조선어 연구 창간호(1949년 3월호).
리상춘(1958) '훈민 정음의 자랑,' 말과 글 1.
리상호(1961) '《대동운부군옥》과 그 저자 초간 권문해,' 력사과학 3.
리상호(1987) '16－17세기 조선말 말소리 발전에서의 몇가지 문제: 《박통사》 상(번역)과 《박통사 언해》의 대비적고찰을 통하여,' 조선어문 4.
리지린(1960ㄱ) '고조선 국가형성에 관한 한 측면의 고찰(상): 한자사용의 시기에 대하여,' 력사과학 2.
리지린(1960ㄴ) '고조선 국가형성에 관한 한 측면의 고찰(하): 한자사용의 시기에 대하여,' 력사과학 4.
리춘근(1962) '조선어에서의 《술어성》에 관한 문제,' 조선 어학 2.
리환필(1961) '권 문해와 《대동 운부 군옥》,' 말과 글 8.

박성의(1956) '문자 개혁에 대한 주시경선생의 사상,' 조선 어문 6.
박양래(1961) '소위 《주어의 표현수단으로서의 속격토》에 대하여(단어 결합과 문장에서의 속격토),' 조선 어학 3.
박윤원(1963) '《속행 언서 초, 중, 종성 이십륙자 변》에 대하여,' 조선 어학 2.
박정문(1984) 조선어사연구론문집, 교육도서출판.
박정수(1956) '서평: 《조선 서지학 개관》에 대하여,' 력사과학 5.
박춘조(1986) '훈민정음의 창제와 그를 전후한 시기의 출판 인쇄 문화에 대하여,' 문화어학습 2.
백 예(1962) '조선어 한자 어휘와 한어 어휘와의 비교,' 조선 어학 4.
서윤범(1957) '훈민정음 연구를 위한 몇가지 기본 자료,' 조선 어문 1.
서윤범(1958) '탁월한 국어 학자 주 시경 선생,' 말과 글 6.
송서룡(1964ㄱ) '언어의 력사적 발달,' 조선 어학 4.
송서룡(1964ㄴ) '언어의 발달,' 조선 어학 5.
신구현(1949ㄱ) '국문 운동의 선각자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업적,' 조선어 연구 1.4.
신구현(1949ㄴ)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업적,' 조선어 연구 1.5.
신구현(1956) '주시경선생의 생애와 활동(그의 탄생 80주년을 맞으면서),' 조선 어문 6.
신정아(1958) '《훈몽자회》란 어떤 책인가?,' 말과 글 6.
신정아(1961) '류 희와 《언문지》,' 말과 글 4.
심인현(1990) '계칭토사용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점,' 문화어학습 4.
안세현(1988) '《로걸대언해》와 《박통사언해》와의 표음을 통한 16-17세기 중국 한자음 체계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4.
안홍길(1988) '조선말에서 《목격》형태를 이루는 토들의 뜻조각인 《더》의 발생발전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1.
우세영(1957) '오. 빼. 뻬뜨로바 저 《조선 고문헌 해제》,' 조선 어문 2.
원응국(1961) '우리 나라의 저명한 어학자 신 경준,' 말과 글 3.
원응국(1962) '《훈민정음》에 대한 어음론적 고찰,' 조선 어학 1.
원응국(1963) '《훈민정음》의 철자 원칙,' 조선 어학 4.
田蒙秀(1947) 朝鮮語源志, 赤誠社.
田蒙秀(1949ㄱ) '訓民正音의 音韻 組織,' 조선어 연구 1.1.
田蒙秀(1949ㄴ) '朝鮮語 音韻論(1),' 조선어 연구 1.3.
田蒙秀(1949ㄷ) '朝鮮語 音韻論(2),' 조선어 연구 1.4.
田蒙秀(1949ㄹ) '朝鮮語 音韻論(3),' 조선어 연구 1.6.
전몽수(1949ㅁ) '조선 어문에 대한 력사적 고찰,' 력사 제문제 12.
전몽수(1949ㅂ) '조선 어문에 관한 력사적 고찰,' 력사 제문제 14.

田蒙秀 · 洪起文(1949) 訓民正音 譯解, 조선어문고 제1책, 조선 어문 연구회.
전제수(1963) '단어의 어휘적 의미의 변화와 문법적 형태,' 조선 어학 2.
정렬모(1954) 신라향가주석, 국립출판사.
정렬모(1956) '조선어 문법에 대한 주시경선생의 견해,' 조선 어문 6.
정렬모(1957) '체언 술어에 나타나는 《이》의 성격,' 조선 어문 2.
정렬모(1959) '고전독해에서 주체성을 살리자: 향가의 처용가를 중심으로,' 조선 어문 3.
정렬모(1960) '조선에 침투한 한자어에 대한 문제,' 조선 어문 2.
정렬모(1961) '탁월한 언어학자 주시경 선생(그의 탄생 85주년을 맞으면서),' 말과 글 2.
정렬모(1962) '언어학적 측면에서 본 《향약집성방》,' 조선 어학 2.
정렬모(1963ㄱ) '언문 변종설,' 조선 어학 1.
정렬모(1963ㄴ) '조선어 문장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의 력사적 고찰,' 조선 어학 2.
정렬모(1965) 향가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정렬모(1966) '조선말에서 토의 발달이 어떤과정을 밟아 왔는가,' 어문연구 4.
정순기(1963) '문법화 과정에 있는 불완전 명사적 단어들에 대하여,' 조선 어학 2.
정순기(1988) '공화국의 기치밑에 언어학연구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 조선 어문 3.
정용호(1962ㄱ) '훈민 정음을 반대한 최 만리 일파,' 말과 글 4.
정용호(1962ㄴ) '최 세진과 《훈몽자회》,' 말과 글 7.
정용호(1963) '조선 민족어의 형성에 대하여,' 조선 어학 2.
정학모(1957) '《훈몽자회》,' 조선 어문 5.
정학모(1962ㄱ) '언어학에 대한 정 다산의 견해와 《아언 각비》,' 조선 어학 3.
정학모(1962ㄴ) '정 다산이 본 속담과 《이담속찬》,' 말과 글 8.
정홍교 · 장권표 · 박춘명(1986ㄱ) 조선고대중세문학작품해설(1),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정홍교 · 장권표 · 박춘명(1986ㄴ) 조선고대중세문학작품해설(2),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최능선(1965) '《훈민정음해례》에 반영된 우리 문'자 교수 방법,' 조선 어학 1.
최영식(1965) '강좌: 조선 문헌학의 대상과 과업,' 력사과학 6.
최완호(1961ㄱ) '언어 문학 유산: 최세진과 훈몽자회,' 말과 글 2.
최완호(1961ㄴ) '류 희의 《물명고》,' 말과 글 7.
최응제(1960) '《룡비어천가》에 반영된 모음 조화 현상의 몇가지 특성,' 조선 어문 3.

최응제(1961) '《ㆍ》에 대한 고대 언어 학자들의 견해 해제 및 자료,' 조선 어학 4.
최재우(1990) '《한청문감》의 문헌적가치에 대하여,' 조선 어문 2.
최정후(1964) '《우랄－알타이》 가설의 발생과 발달에 관한 몇가지 문제,' 조선 어학 3.
최정후(1966) '조선어 어휘구성의 발달에 대하여,' 어문연구 3.
최정후(1983) 조선어학개론,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편집부(1959ㄱ) '古典 講座: 月印釋譜의 硏究,' 조선어 연구 1.8.
편집부(1959ㄴ) '훈민정음 창제 515주년을 맞으며,' 조선 어문 1.
편집부(1961) '《훈민정음(해례)》 저작 515주년,' 말과 글 11.
편집부(1962ㄱ) '주시경 탄생 85주년 기념 행사 진행,' 조선 어학 1.
편집부(1962ㄴ) '국어와 국문의 필요,' 조선 어학 3.
편집부(1963ㄱ) '《훈민정음》 창제 520주년을 맞으며,' 조선 어학 4.
편집부(1963ㄴ) '《훈민정음》 창제 후 나온 책들,' 조선 어학 4.
편집부(1964) '훈민정음을 만든 520주년 기념 보고,' 조선 어학 2.
편집부(1984ㄱ) '새로 나온 책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문화어학습 1.
편집부(1984ㄴ) '훈민정음창제 540돠 기념보고회,' 문화어학습 2.
하치진(1959) '리두에서의 《良中》과 《亦中》,' 조선 어문 3.
하치진(1961) '리두에서의 《一有》와 《一行》,' 조선 어학 2.
하치진(1963) '《조선어 발달사》에 대하여,' 조선 어학 3.
하치진(1964) '조선어 《시－태》에 대한 력사적 고찰,' 조선어 연구에서의 몇가지 문제(학위론문집), 과학원출판사.
한수암(1949ㄱ) '〈송강가사〉(松江歌辭)의 연구(1),' 조선어 연구 1.1.
한수암(1949ㄴ) '강좌: 〈송강가사〉의 연구(2),' 조선어 연구 1.2.
한수암(1949ㄷ) '〈송강가사〉의 연구(3),' 조선어 연구 1.3.
한수암(1949ㄹ) '〈송강가사〉의 연구(4),' 조선어 연구 1.4.
한수암(1949ㅁ) '〈송강가사〉의 연구(끝),' 조선어 연구 1.5.
한수암(1949ㅂ) '〈장끼전〉 연구,' 조선어 연구 1.7.
한수암(1950), '〈농가 월령가〉(農家月令歌)의 해석,' 조선어 연구 2.2.
한영순 · 최정후(1963) '《훈민정음》 창제자들의 음운에 대한 견해,' 조선 어학 4.
洪起文(1949) '三國 時代의 朝鮮 漢字音과 우리의 語音,' 조선어 연구 1.4.
홍기문(1956ㄱ) '조선어에서 외국어를 연구한 력사: 19C 말까지,' 조선 어문 5.
홍기문(1956ㄴ) 향가해석, 과학원출판사.
홍기문(1956ㄷ) '고구려의 리두와 신라에서의 그 발달,' 김일성종합대학 창

립 10주년 기념론문집.
홍기문(1956ㄹ) '조선어에서 구개음화 현상의 력사적 발달,' 조선 어문 6.
홍기문(1957ㄱ)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홍기문(1957ㄴ) '정음'자에 반영된 15세기의 어음현상,' 조선 어문 3.
홍기문(1957ㄷ) '고대 조선어에서 형용사의 특이한 변천과정,' 조선 어문 5.
홍기문(1958) '고대 조선어의 형태와 현대어의 토,' 조선 어문 5.
홍기문(1959ㄱ) 고가요집, 조선 고전 문학 선집 1, 국립 문학 예술서적 출판사.
홍기문(1959ㄴ) '조선어와 몽고어와의 관계,' 조선 어문 6.
홍기문(1963) '삼국시대의 지명과 조선어의 계통문제,' 조선 어학 4.
홍기문(1966) 조선어 력사 문법, 사회과학출판사.
홍기문 · 김병제 · 박종태(1964) 조선어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홍수장(1989) '초기국문소설을 통하여 본 17—18세기 조선말의 격체계와 격형태,' 조선 어문 3.
황부영(1957) '15세기 조선어의 주격과 그의 문법적 기능,' 조선 어문 4.
황부영(1959) 15세기 조선어 존칭 범주의 연구, 과학원출판사.
황부영(1961) '15세기의 조선어의 존칭 범주에 대하여,' 말과 글 12.
황부영(1962) '주시경 선생의 과학적 리론과 견해,' 조선 어학 1.1

참고문헌

강 영(1991) '북한의 이두연구사,' 북한의 조선어연구사(I), 도서출판 녹진.
고영근(1988ㄱ) '주시경 연구의 어제와 오늘,' 주시경학보 1.
고영근(1988ㄴ) '북한의 언어, 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방안(1),' 주시경학보 2.
고영근(1989) '북한의 언어, 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방안(2),' 주시경학보 3.
고영근 편(1989) 북한의 말과 글, 북한의 인식 7, 을유문화사.
국어국문학회(1990) 북한의 국어국문학연구, 지식산업사.
김동언(1992) '북한의 국어사, 방언론,' 국어학연구100년사(Ⅲ), 일조각.
김무림(1991) '북한의 향가연구사,' 북한의 조선어연구사(I), 도서출판 녹진.
김민수(1985) 북한의 국어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증보판; 일조각, 1989].
김민수 편(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전 4권), 도서출판 녹진.
김방한(1983) 한국어의 계통,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1, 민음사.
김병제(1990) '언어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언어연구 사업에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 조선어문 2.
김완진 서평(1992)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주시경학보 9.
남기심 서평(1988) '최정후(1983), 『조선어학개론』,' 주시경학보 2.

박병채 서평(1990) '김영황(1978),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주시경학보 5.
박지홍(1991) '북한의 국어학사 연구: 김병제, 『조선어학사』를 통해 본,' 한글학회 정기총회 기념 연구발표대회 요지.
배현숙(1991) '북한의 국어학사연구사,' 북한의 조선어연구사(I), 도서출판 녹진.
북한언어연구회(1989) 북한의 어학혁명, 도서출판 백의.
서재극(1991) '홍기문의 『향가해석』 연구,' 한글학회 정기총회 기념 연구발표대회 요지.
선미리(1990) '남북한 국어사 연구의 비교,' 부산한글 9.
송기중(1990) '비교연구: 국어와 북방민족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송향근(1988) '북한의 국어사연구,' 기전어문학 3, 수원대.
송향근(1989) '북한 국어문법사,' 북한의 어학혁명, 도서출판 백의.
송향근(1991) '북한의 국어사연구사,' 북한의 조선어연구사(I), 도서출판 녹진.
신지영(1991) '북한의 음운론사,' 북한의 조선어연구사(I), 도서출판 녹진.
오정란(1992) '북한의 음운론,' 국어학연구100년사(Ⅲ), 일조각.
유창균 서평(1990) '김병제(1984), 『조선어학사』,' 주시경학보 5.
이강로(1991)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에 드러난 틀림과 모순점,' 한글학회 정기총회 기념 연구발표대회 요지.
이기문(1967) '한국어형성사,' 한국문화사대계 V,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기문(1968) '고구려의 언어와 그 특징,' 백산학보 4.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이돈주(1991) '김영황 지은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에 대하여,' 한글학회 정기총회 기념 연구발표대회 요지.
이현희(1990) '훈민정음,'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자하어문학회(1990) 북한의 조선어학, 한신문화사.
전수태·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비교, 도서출판 녹진.
정 광(1990) '비교연구: 국어와 일본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조동일(1983)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최정여(1989) 한국고시가연구, 계명대출판부.
홍기문(1946) 정음발달사(상, 하), 서울신문사 출판국.

ABSTRACT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Linguistics in North Korea

Hyeon-hie Lee

There has not been very much research or annotation done in North Korea on Korean historical linguistic data. The only area in which there has been significant achievement is the annotation of data written in non-hangûl script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lack of results in the absence of such basic initial efforts as the photoprinting and annotation of texts and the compilation of a dictionary of pre-modern Korean.

The study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may b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histories, and research in the North has shown a tendancy to try to advance from internal to external history. North Korean scholars have never mad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There has been relative progress in the areas of the geneology of Korean, non-hangûl scripts(borrowed characters), phonological history, and grammatical history, but the area of lexical history has been sorely neglected.

The only real book on the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published in the North is Kim Pyŏng-Je's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1984). Research has been relatively active in the areas of *Hunmin-jŏngŭm* and Chu Shi-Gyŏ ng, but in general research in the area of Korean linguistic history has been limited and confined to a very narrow scope.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